

■ 북·미 '금융제재 실무협약' 어떻게 되나?

# BDA 계좌 해제부터 논의 할 듯

(방코델타아시아)

북한과 미국, 중국이 베이징에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회담 재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북 금융제재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오후 베이징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금융제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열릴) 회담에서는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다루게 되겠지만 아마도 실무그룹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북한이 일단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양보'를 한만큼 미국도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6자회담의 틀내에서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의도는 '금융제재 논의하느' 수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6자회담 복귀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 가운데 금융제재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베이징 회담의 성과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금융제재 실무협약의 그 동안 북한이 꾸준히 요구해온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외교라인 뿐 아니라 금융 담당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 실무협약의 의의는 우선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에 대한 동결 해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실무협약을 통해 기존의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북측이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하는 성의를 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일 3국 수석대표의 깜짝 비밀회담이 끝난 후, 미국으로 귀국하기 전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힐 "실무팀 곧 구성... 6자회담 틀 내서 절충" 북, 해제 '논의' 이상의 미국측 실행 촉구 예상

인 만큼 미국도 BDA 계좌 해제와 관련해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재무부의 BDA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 동안 파악된 위조달러의 실상을 전달하고 북한 측의 재발방지 보장을 전제로 '동결된 자금'에 대한 해제 문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 측 자세를 전향적인 것으로 판단할 경우 동결자금 중 합법적인 자금을 대해서는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올해 초 북한 측이 제시했던 달러위조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 처벌과 관련 장비 압수 및 통보는 북

한이 취해야 할 조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은행 등이 유지하고 있는 북한 계좌 동결 조치도 자연스럽게 중국 당국에 의해 해제되는 내용도 생각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한미 양국은 물론 중국과도 의견 조율이 있어왔다"면서 "곧 재개될 6자회담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살펴가면서 금융제재 문제에서도 구체적인 합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 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조선중앙TV촬영. /연합뉴스

## "북·미 표현 다르지만 동일 내용"

### ■ 北 북극 '전제' 있으나 없다

지난달 31일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전격 합의했으나 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을 놓고 양국이 상반된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우리는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미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31일 "북한은 이르면 11월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우리는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금융제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 메커니즘을 만든다"면서 회담의 전제조건이 없으며 단지 금융제재 문제와 관련해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미 양측이 전제조건을 놓고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국이 표현을 달리 했지만 동일한 내용을 밝힌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곧, 양측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명확하게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내용을 양측의 종전 입장에 어긋나지 않게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 발표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 ■ 현장과 시각 ■ ■

### 문예회관과 관람 문화



김미은 문화부 차장

요즘 클래식 공연장에 갈 때면 좌석의 '위치'와 함께 '사람'에도 관심을 쏟는다. 수행평가 때문에 단체로 온 학생들이 주변에 앉아 있으면 일단 긴장이 된다. 특히 얼마와 함께 온 어린이가 인근에 앉게 될 경우는 '대략 난감'이다.

지난달 27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보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했다. 가장 큰 고통은 '우리아이는 클래식 공연을 잘 본다'며 '7세 이하 입장 불가'를 어기고 들어온 욕심 많은 얼마와 꼬마 관객 때문이었다.

두 번째 고통부터 5살 꼬마 아이는 로보트를 만지느라 '빠터빠터' 소리를 내며 친일었고 2부 때는 뒷쪽 난간에 매달리기도 해 아이가 떨어지기도 할까봐 조마조마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이날 객석 중간에는 3대의 카메라가 설치됐었다. 한창 연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카메라 스태프 한명이 무려 6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카메라 맨에게 일일이 음료수를 전달해 주었다. 관람환경을 헤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연장 안은 음식물 반입 금지 아니었던가.

황당한 풍경은 계속됐다. 과감하게 객석 가장 앞 자리까지 두번을 왕복한 학생도 있었고, 공연 중 나갔다 다시 들어와 친구를 데리고 나가는 용감한 학생도 보였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도 제지하는 안내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공연장 관리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전주 소리문화재단이나 대전문화예술의 전당과 달리 광주문예회관에는 전담 직원이 없다. 대신 기획사 공연일 경우 대관업체가 10~15명의 관리 요원을 자체 운영한다.

반면 시립단체의 공연 때는 문예회관에서 장내 정리를 맡는다. 회관 측에서는 이날 "전 직원과 이트바이트·자원봉사자 1~2명이 정리를 맡았다"고 했지만 공연장 내에서 안내 요원을 찾기는 어려웠다.

장내 관리는 공연이 시작된 후가 더 중요하다. 각 출입구와 객석 가장 뒷쪽에 관리 요원을 배치, 공연이 끝날 때까지 관람객의 이동을 통제하는 게 기본이다. 객석에 앉아 있던 관객이 갑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는 관리자도 어쩔 도리가 없지만, 공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제집 드나들듯 객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날도 회관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내 정리에 나섰다. 문예회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내 정리에 나섰다. 문예회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내 정리에 나섰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 문예회관에서는 좋은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문예회관은 어떤 '노력'을 했던 걸까. 과연 그 멘트에 공감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mekim@kwangju.co.kr

## ■ 베이징 회담 막후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초기 재개 합의의 이끈 베이징(北京)에서의 3자 회담은 중국의 끈질긴 막후 노력으로 이뤄졌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등 6자회담 북·중·미 수석대표는 지난달 31일 시내 모처에서 비밀리에 만나 7시간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1년간 굳게 닫혔던 6자회담의 문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합의내용 발표 하루 뒤인 1일에도 북·중·미 3자 회담 전후 상황과 이들의 동선 등은 여전히 베일에 드리워져 있다. 그만큼 첩보전을 방불

케 하는 깜짝 회동이었던 것이다.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해 '7시간 비밀회담'의 전후를 재구성하면 이렇다. 회담은 중국 측 우선으로 성사됐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주말 주중 미국대사관을 통해 3자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당시 남태평양 피치를 거쳐 호주에 머물고 있던 힐 차관보에게 회담을 갖도록 승인했다.

힐 차관보는 3자 회담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베이징에 도착, 국제구락부 호텔

에 숙소를 정하고 우 부부장과 1차 접촉을 갖는다. 중국은 북한 측에도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취했다.

김계관 부상은 지난달 31일 아침 고려항공을 통해 베이징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공항 퀵빈통로를 빠져 나오는 김 부상을 목격했지만 그가 3자 회담을 위해 온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관측통들은 3자 회담 장소가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1년여의 교착을 깨고 4차 6자회담 개최 합의를 이뤄낸 3자 비밀회담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었다.

이들은 현지 시각 오전 11시계부터 머리를 맞댔고 점심식사와 함께 했다. 때로는 우 부부장이 자리를 비켜준 가운데 김 부장과 힐 차관보가 양자 회담을 갖기도 했다. 우 부부장과 힐 차관보가 먼저 만난 뒤 3자가 점심식사를 함께 했고, 이어 북·미 양자접촉을 갖고 난 후 3자가 다시 회담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중국 외교부는 북·미 양측으로부터 6자회담 초기 재개 의사를 확인한 뒤 이날 오후 6시를 조금 넘은 시각 관련 당사국들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오후 7시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 "북 핵실험 한국 가장 큰 피해"

### 아리랑 국제방송 조사

북한의 핵실험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리랑국제방송은 지난달 16~31일 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56개국 네티즌 1천 82명을 대상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 핵실험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응답이 52.3%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미국(23.1%), 일본(10.5%), 북한(8.6%), 중국(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힐, 호주 방문중단 급거 베이징행 북·중·미 '7시간 릴레이 회담'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지금 중국어 어느 정도 수준이세요? 알려주세요!

**매월 초 개강**

- ▶ 초급반 (1인1교)
- ▶ 중급반 (1인1교)
- ▶ 고급반 (1인1교)
- ▶ 회화반 (1인1교)
- ▶ 특강반 (1인1교)
- ▶ 특강반 (1인1교)

총학비 4만원 이하

**리틀자이니 中国語 学院**

공평 247인사부동 2층 2호실 TEL: 090-233-9562

2006년 대중형 인공위성 수상기

2006년 "생애 일회성" 투자에 가장 이상적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를 1대로**

신탈

080-701-7117